

가나안 이야기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멀어진 거리와 좁혀진 거리’

백신 미접종자인 다비드는 노인 센터에서의 봉사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근래 와서 이스라엘의 백신 접종률(49%)이 어느정도 올라간 상황에서 목표치인 60~70%의 집단 면역까지 도달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으로 야기된 일입니다. 저희에게 백신接种의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맞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아내와 저는 백신接种에 대한 일치된 생각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현재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 기도하며 합의에 도달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센터에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계자들과 섬김의 방법과 시기와 영역에서의 변화를 놓고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백신接种에 대한 저희들의 결론이 나기전 그 사이에 비대면의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길을 선택해 가고 있는지 때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또 존중하며 기다려 주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중단 없이 사역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아내가 기도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에 ‘티키’ 아줌마 집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티키 아줌마는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양아들 ‘알론’의 여자친구 ‘수경’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교제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티키 아줌마 하고는 작년에 그녀의 남편 ‘요새’의 죽음 이전과 이후 계속 소통하며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일찍부터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티키 아줌마의 초청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티키 아줌마와 더불어 알론, 수경자매 커플 역시 저희들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수경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계속 아내와 교제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티키 아줌마와 알론 그리고 수경 자매와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위로와 기쁨의 아들 라샤...’

베루인 마을 ‘라샤’는 지난 2019년 9월 출생 이후로 지금까지 누워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라샤’를 임신했을 때 엄마인 ‘네스틴’이 첫째 아들 ‘요세프’의 갑작스런 익사 사고로 큰 충격과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 동안 자신의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지요. 그 영향으로 ‘라샤’에게 미친 영향은 장애아라는 또다른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태어날때부터 머리에 장애를 안고 태어나 일상적인 생활을 거의 못하고 있는 ‘라샤’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라샤’의 생애가 그리 좋지 못합니다. ‘라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건강이 호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처음 그가 태어날 당시 저의 바람과 기도 제목이었던 ‘요세프’를 잃은 엄마와 그의 가족들에게 ‘라샤’가 진정 위로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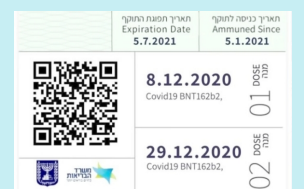
밀밭 사이를 걸으며

희어 추수할 때가 이르기까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물을 주는 일을 계속 하게 하소서



골란 고원에 내린 눈

골란 고원에 눈이 내려 가족들과 함께 눈 구경 왔어요.



GREEN PASS

이스라엘은 2차 백신接种을 마친 사람들과 코로나 감염에서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린 패스’를 발급해 줍니다.



계속 누워만 있는 ‘라샤’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워만 있는 ‘라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 살아가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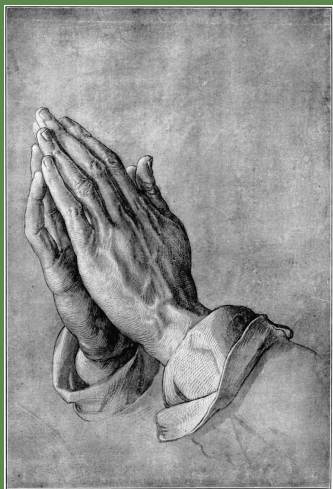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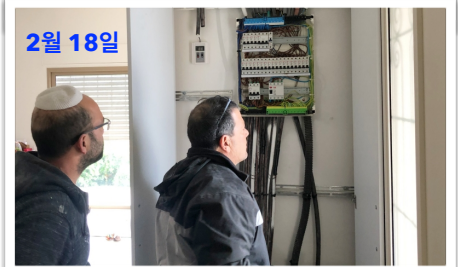
살롱! 갈릴리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 하시지요?

요즘 이스라엘의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편지를 쓰기 위해 지난 일들을 사진 속에서 확인하다 보니 2월 11일에는 날이 너무 좋아 아이들이 반팔을 입었고, 2월 17일은 골란 고원에 눈이 와서 아이들이 옷을 두텁게 입었고, 2월 18일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안으로 빗물이 침투해 정전 사태가 벌어졌으니 이정도면 이스라엘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만 그렇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지 어느덧 2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국민 930만명 중 460만명 가량이 1차 혹은 2차 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률(49%) 세계 1위입니다. 정말 빠른 속도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접종을 마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다중 시설 이용이나 모임 참여 여부가 달라 집니다.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는 백신 미 접종자들의 불만도 이해 되지만 또 정부와 이미 접종 받은 분들의 주장과 생각도 존중합니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또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마음을 갖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도 본격적인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희들의 입장과 고민과 같은 종류의 문제로 가족과 동료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갈등과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접종 받는 분들이나 다양한 이유로接种의 시기를 유보하신분들 모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건강과 안전이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더불어 유월절 어린양의 보혈이 각 가정과 속한 공동체 위에 뿌려져 코로나의 그림자가 무사히 지나가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3월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기도제목 」

- 1) 노인센터에서의 봉사와 섬김이 끊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 2) 2021년 올해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 3) '라샤'의 건강이 호전되고 위로와 기쁨의 아들로 우뚝 설 수 있도록
- 4) 3월에 진행될 비장갱신이 아무런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5) 매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Motto : ' 무릎으로 살아가며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하면 가고 하라하면 행한다. '

「 후원정보 」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단아,도하,다운)
- KEB 하나은행 :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목적헌금: 코리엘
- KEB 하나은행 :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정재석) / TEL : 02-3775-4471

-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연락처 」

- 현지주소
JAESUK JUNG
P.O.Box 363, Poriyya Illit, Galil Tachton, 1520800, Israel
Phone number: +972(0)586623513
- 인터넷 전화: +82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카카오톡 ID: magendavid77
- QR코드:

